

나비가 유혹하는 섬 워킹

왕얼룩나비 학명: *Idea leuconoe*

흑백의 반점 무늬가 특징인, 일본에서는 가장 큰 나비 중의 하나로서 천천히 날갯짓을 해서 동실동실 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 모습이 우아하여 남국(南國)의 귀부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번테기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금빛을 띠고 있습니다. 애벌레는 덩굴식물인 호라이카가미(협죽도과의 식물)를 먹고 자랍니다. 독이 있는 식물을 먹이로 삼음으로써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마미지마 섬에서는 거의 연중 볼 수 있으며, 어둑어둑한 숲의 가장자리 등의 길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현의 현나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류큐아사기마다라 학명: *Ideopsis similis*

날개의 검은색과 옅은 남색(아사기색)의 무늬가 아름다운 나비입니다. 나뭇가지나 덩굴을 붙들고 집단으로 겨울을 나는 나비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애벌레는 덩굴식물인 쓰루모린카(박주가리과 식물)를 먹고 자랍니다. 독초를 먹음으로써 체내에 독을 저장하여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개의 색은 독이 있음을 적에게 알리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마미지마 섬에서는 거의 연중 볼 수 있으며, 숲 가장자리 길가나 밝은 숲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끝주홍큰흰나비 학명: *Hebomoia glaucippe*

날개 윗면은 흰색과 크림색이고 끝부분의 주홍색이 특징적입니다. 비상하는 능력이 매우 강하며 날개를 V 자 모양으로 펼쳐 민첩하고 빠르게 날니다. 애벌레는 어묵의 나뭇잎을 먹고 자랍니다. 자마미지마 섬에서는 겨울의 한 시기를 제외하고 볼 수 있으며 도랑이나 계류 등을 따라 만날 수 있습니다.

쓰마무라사키마다라 학명: *Euploea mulciber*

수컷과 암컷의 날개 색이 다른데, 수컷 날개의 끝부분이 특히 아름다운 청자색 광택을 발산합니다. 애벌레는 천선과나무와 가주마루(대만고무나무) 등의 뽕나무과, 류큐테이카카즈라나 호라이카가미 등의 협죽도과 식물을 먹고 자랍니다. 자마미지마 섬에서는 거의 연중 숲 주위의 길가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흰띠제비나비 학명: *Papilio polytes*

수컷·암컷 모두 검은색 날개에 이름의 유래가 된 흰 띠가 들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애벌레는 시과사나 하마센단 등의 운향과 식물을 먹고 자랍니다. 자마미지마 섬에서는 겨울의 한 시기를 제외하고 볼 수 있으며, 밝은 숲길이나 사람이 사는 집 주변의 풀밭 등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